

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빼꾸기는 이렇게 울었다

많은 시간이 흘렀다. 저만 지 달가울 것 같은 고향의 추억, 그 한 자리를 빼꾸기 차지한다. 군복 지글도 그리워지는 유년 시절, 사랑했던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그립다. 살구나무 아래에 앉아 흙장난으로 보내던 험난한 시절 동화이, 길을 이 험은 이지도 고향을 지키고 있을까?

문들 떠오르는 얼굴은 고요한 밤 하늘을 수놓은 청이한 빼꾸기 소리에 끌려 어깨처럼 흘리기 버려다. 빼꾸기는 때까지, 지빠귀 따위의 능지에 앓을 낳아 깨어 하는 특성이 있다. 초여름에 남쪽에서 날아오는 여름새로 빼죽 빼죽하고 구수하게 운다.

이 구슬픈 울음은 우리의 마음에 앓 수 없는 묵향, 감정을 불러오는 바력이 있다. 덧없는 세월에 끌려 아보면, 더욱 그렇다. 인생은 활나에 불파하다. 그런 세월을 누적과의 세인 빼꾸기가 자주 소환된다.

도서 출판 NEXT DESIGN 송현체 사장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본의 학신(化信), 이를 '녹음광초(綠音光草), 가을·취고마비(天高馬肥), 겨울·겨울연기의 부부도' 구성된 송대중 시인의 첫 시집(시선 12호) '빼꾸기는 이렇게 울었다'(PDF)다.

세상을 살아가 보면, 좋은 일도 많겠지만, 시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일에 위클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시간 낭비는 물론 소모전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에서 한동 안 벗어나기 어려울 때도 있다.

고칠 수 없는 병이 가끔 도진다. /일이 심심하다고 주전부리를 찾고 /일맛이 없을 땐 외식하고 한다 / 절친을 만나서는 입방아가 쟁고 싶어지고 / 일이 출출하다며 술을



박여범

용복중학교교감·시인
문학박사·문학평론가

먹는다 / 분명히 내 임이건만 간수하기가 쉽지 않다 / 잠을 자다가도 짙끄대하는 일 /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숙제가 일단속이다.

-송태종, '세상을 살아가면서'
145~146쪽. 전문-

위 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없는 병의 출발점은 바로 '자신'에게 있다는 놀라운 얕은 사실이다. '입'은 '입'이 보듯 화의 균형이 되는 경우가 많다. 맛있는 밥을 먹거나, 주전부리를 찾다 과자를 씹거나, 외식으로 단축감을 너하거니, 절친을 만나 웃닥화를 깨는 그 맛은 어느 낮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좋다. 그 일에 숨, 숨이 습습 늘어가면 꼭 부재가 생긴다. 술, 바로 그 술이 문제다. '나만 왜 그럴까?'. 다른 사람들은 재밌고 아무 일 없이 잘 살아가는데, 왜, 왜, 나만 늘 불행한 것인가? 하는 고민으로 쓴 소주잔을 기울이곤 한다.

한 잔 두 잔 솔이 한 번, 두 번 술병을 쟁다 보면, 입은 분명히 내 입인데 간수하기가 쉽지 않다. 단점은 초콜릿보다 더 단점한 것이다. 바로 '사랑'이다. '사랑'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뻤던 주역에 깊은 기소가 날을 것이다. 비록, '싸랑' 때문이지 않을까?

쓴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⁹송태종, '책을 내면서': 위의 책, 5쪽. 일부분) 그 이유로는 '기울어져 가는 기울의 노을을 바라보는 나그네의 목숨을 누가 알아줄까'는 망설이다가 주저하였음을 소박한 언어로 독자에게 다가오고 있다.

시인은 또하니 쓰기에는 이제부터란 생각이다. 빼죽다! 서툰 글솜씨 부족함에 마음이 쓰인다. 라며 겸손의 밝은 비소와 글쓰기의 향기를 텁으로 함께 할 수 있다.

빼거먼 소리를 내며 출입문을 열어 본다. 세상은 여전히 흥흉한 코로나 소식으로 기득한데 / 아무도 안 계세요 / 그대가 부르는 소리처럼 아득해진다.

-송태종, '그리움', 51쪽. 일부분-

위의 시처럼, 바음의 문을 열어 본다. 그리고 그림 담아 마음의 문을 엽어 본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 소식으로 달려 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연었는데, 받아온 세상은 부재다. 그래서 더욱 그린다.

그리움이라 것이 이렇게 아픈 것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을 것이다. / 아무도 안 계세요/을 카톡해서 크게 외친다. 그 외침은 빼꾸기가 올 때에는 12시 종소리, 빼죽, 빼죽 '저렴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무딘 감정의 노예가 된 현대인을 향해 외치는 저렴한 봄부림이 아닐까? 그럼에도 그 외침은 외침으로 끝나버린다.

코로나9라는 거대한 너석이 그 리움을 그리움으로 승화시켜 그리움만 쓰이게 된다는다.

내일도 12시가 되면, 우리 집 빼꾸기는 '빼죽, 빼죽'을 엎어대며 자신의 주어진 일에 충실하겠지? 기계 되었음을 드릴까?

사설

대한방직 활용 권고안 문제

예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23만여평의 개발 방향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시민공론화위원회는 시민 의견을 듣는 마지막 절차인 토론회를 미쳤다.

앞서 시민은 2017년 이 부지를 약 2,000억 원에 사들였다. 그리고 세계 5위에 해당하는 153층(470m) 높이의 익스트림 타워를 비롯해 60층짜리 3천 가구 규모 아파트와 호텔 등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토지용도 변경에 따른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도로와 공원 등 공공용지를 시에 기부해 낸 하겠다고 제안했다. 전주시는 "자본의 개발 계획이 전주시의 장기적 도시 개발 계획 등과 맞지 않는다"며 제안서를 반려한 바 있다.

대한방직 토지 소유주인 자본이 제출한 개발안에는 조금 다르다. 세 가지 안을 두고 시민참여단 99명이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권고안을 만드는 작업에 돌입했다.

최종 권고안에는 시민들이 세 가지 안 가운데 어떤 안을 선호하는지가 담긴다. 주거와 상업, 생태 등 용지별 비율과 공간 구성, 기부채납과 이익금 환수 규모 등 세부적인 내용도 들어간다. 시민공론화위원회가 권고안을 전주시에 내면 공은 전주시와 자

광에 넘어가게 된다. 전주시는 권고안을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이르면 3월부터 토지 소유주인(?) 자본과 개발 방식 등에 대한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자본은 2017년 이 부지를 약 2,000억 원에 사들였다. 그리고 세계 5위에 해당하는 153층(470m) 높이의 익스트림 타워를 비롯해 60층짜리 3천 가구 규모 아파트와 호텔 등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토지용도 변경에 따른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도로와 공원 등 공공용지를 시에 기부해 낸 하겠다고 제안했다. 전주시는 "자본의 개발 계획이 전주시의 장기적 도시 개발 계획 등과 맞지 않는다"며 제안서를 반려한 바 있다.

한편 대한방직 부지 개발은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과도 맞닿아 있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내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 백화점 건립 사업과 관련해 전라북도에 자방재 정·투자 사업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히면서 첫 번째 행정절차를 본격화 했다.

관급공사 개입 혐의 정읍시의원

전북 도내 일부 시군의원들의 각종 비리 혐의가 연이어 있다. 일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의원직을 상실했는 의원들도 종종 있다. 전주지법은 지난 2017년 정읍 구질초 공원 출렁다리 공사를 특정업체가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읍 시의회 어느 의원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인 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 같이 판결했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정읍 구질초 테마 공원과 부지봉을 연결하는 출렁다리 조성 사업은 국비 26억원을 받아 진행된 사업이다.

해당 의원은 금품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업체가 공사를 맡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교양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하도급 업체와 재하도급 업체 사이의 금품 갈등으로 인한 고소·고발이 이뤄지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의원의 사무실 등

을 압수 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그리고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정읍시청 사무실도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의원,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도 개입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관급 공사 수주 비리는 전국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 로비 의혹과 공정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된다. 공사 수주를 둘러싸고 업계와 공직자 간 고질적인 병폐가 심하기 때문이다.

공사 수주 과정에서 빚어지는 갖가지 비리와 잡음은 발주 기관과 건설업체 사이에 겹은 뒷거래로 이뤄진다.

특히 건설업체들이 극심한 수주 난을 겪게 되면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공사 수주전에 가세하고 있다.

업체가 담합하거나 공무원과 업자가 유착되며 비리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공직자와 건설업체의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갈수록 시급해지고 있다.

사회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바쁜 출근길에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으로 인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일 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깜빡이 없이 바로 끼어드는 차량은 자신은 물론 주변 차량의 안전에 큰 위협을 주기 때문에 진로변경 시 도로 위 다른 차와의 의사소통은 중요하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방향지시등(일명 깜빡이)이다.

차량의 진행방향을 다른 차량의 운전자에 알리는 방향지시등은 교통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장치이다.

잊지 말고 '방향지시등' 꼭 켜주세요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켜지마자 진로를 바꾸게 되면 대형 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갑자기 기어든 차량에 놀란 운전자의 보복운전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 항목별 공익 신고율 중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 위반(예전 신호조작 불이행)이 1위를 차지했다. 그만큼 운전자는 쉽게 놓칠

수 있는 운전습관이라고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한다.

타인을 배려하는 신호, 방향지시등의

을바른 작동은 ▲일반도로에서는 진로변경 30m 전 지점부터 최소 3초 이상(약 5회), ▲고속도로에서는 진로변경 100m 전 지점부터 최소 5초 이상(약 8회) 정도 조작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벌점 없이 범칙금 3만원(이륜차 2만원)이 부과된다.

도로 위를 나만 달리고 있는 듯 무심하게 운전하지 말고, 타인을 위한 배려와 양보가 몸에 배일 수 있도록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김지은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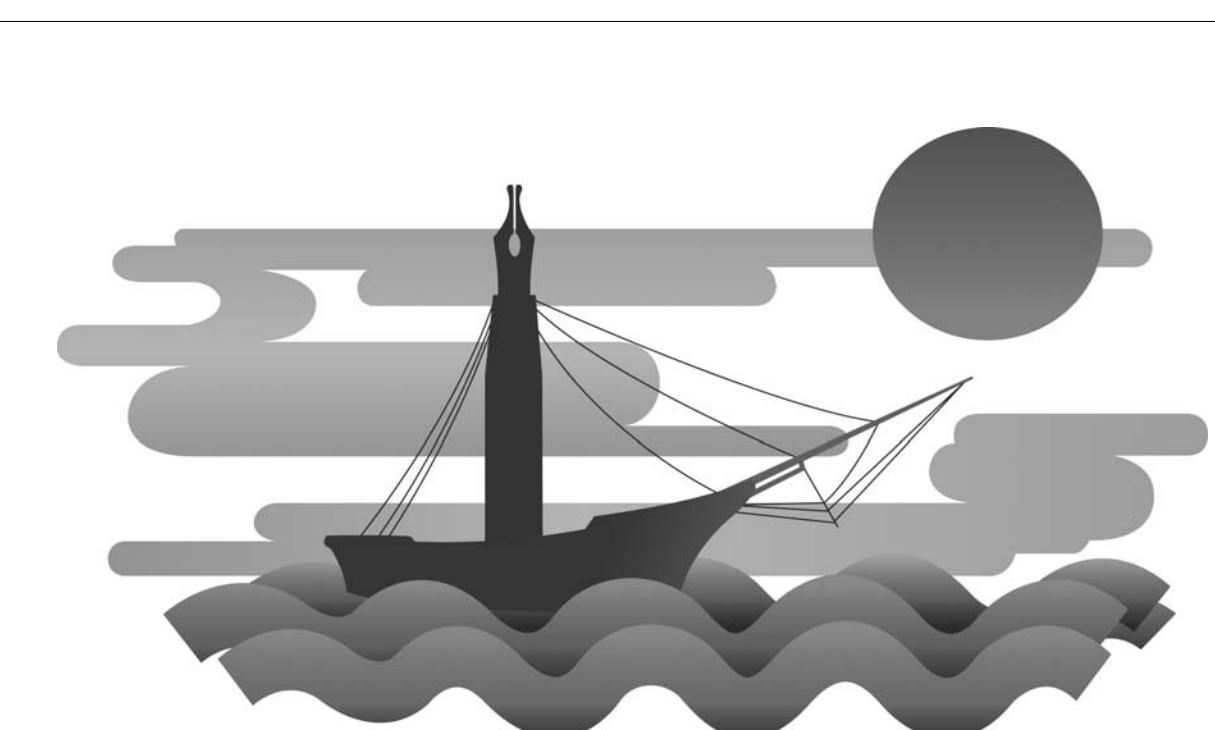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빼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전주매일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